

목포시, 공공기관 유치로 경제 살린다

신재생에너지산업·수산식품산업·관광산업 3대 미래전략산업 선정 수산물거래소·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유치



목포시는 3대 미래전략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산식품산업, 관광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대양산단에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315억원을 투입해 해상풍력 연구개발 센터가 조성된다. 이는 신안에 조성되는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통합 관제소로 입지선정부터 시설물의 실시간 상태 점검, 유지보수 등 전체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대양산단은 지난해 11월 국가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되어 센터를 필두로 해상풍력 관련 기자재 및 부품 생산 기업 유치도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양산단에는 수산식품 산업을 선도할 수산식품수출단지가 조성된다. 전남 해조류의 수산식품 연구개발 및 국제 수산물거래소, 가공공장 등을 조성하여 기업의 수출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대양산단 내 약 3만㎡ 부지에 총 사업비 1,089억원을 투입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올해 국비 24억원을 확보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남향에는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가 들어선다. 이는 남향에 조성될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시설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무탄소 연료를 개발은 선박

산업의 주요 화두로 남향은 친환경 선박 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케이블가 스테이션, 목화 체험장이 조성된 고하도에는 대규모 체험 시설이 들어서며 목포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한다.

도시·연안 생물자원 연구를 목적으로 어린이 체험관, 교육관, 전시관 등을 갖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올해 말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인근에 조성되는 세월호 안전체험복합관은 선체 원형을 전시하고 일부는 내부 체험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재난 체험이 가능한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우리시 3대 미래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며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우리 지역에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함평축산업협동조합 ‘계통사료 3만톤 판매 달성탑 수상’ 쾌거

이용농가 특별장려금 환원

함평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영주)이 농협중앙회로부터 계통사료 3만톤 판매 달성탑 수상 기념으로 사료 이용농가에게 특별장려금을 환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함평축협서는 3억6천만원의 특별자금을 조성해, 사료를 이용한 농가에게 배합사료 포당 250원, 섬유질사료 포당 200원의 장려금을 환원 할 계획이다.

김영주 축협조합장은 이번 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조합 사업을 전이하여 주신 조합원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모아 환원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대외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축산인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함평축협이 되도록 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신안군, 천일염 활용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추진

1004섬으로 더 잘 알려진 신안군은 관내 천연자원인 천일염(바닷물)을 활용, 안전하고 기능성이 강화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안군은 2019년부터 천일염을 활용하여 마늘, 양파, 시금치, 배 등의 작물을 대상으로 실증시험을 추진 한 결과 시용효과가 구명되어, 천일염을 이용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천일염은 어디에서나 손쉽게 사용가능한 천연자원으로 75여종 이상의 무기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비료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미량요소들을 보충해 농작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양분공급과 병해충 방제 효과가 있는 중요한 유기농자재 중의 하나다.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면 천일염(바닷물)을 적정 농도로 희석하여 재배지에 살포할 경우 시설 내에서 흰가루병이 81% 방제효과와 딸기는 잿빛곰팡이병이 49% 방제효과가 있고,

고구마, 감자, 마늘, 양파, 시금치에서는 품질·생산성 향상과 토마토 등 과채류는 당도가 높아지고 저장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무안군, 빨주노초파남보 ‘어린이 비만 예방교실’ 운영

편식예방·올바른 식습관 형성 위해 6~7세 아동 대상



무안군은 어린이 편식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한 달간 5개 어린이집 200여명을 대상으로 신장, 체중, 체지방 등을 측정하고 영양사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비만·편식예방 영양교육을 실시 중이다.

특히 개구리도넛볼과 과일화분 만들기 요리활동 시간을 운영하여 주민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요리교실체험, 영양교육 등 학습기회를 확대하여 아이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목포시, 미향 조성에 구슬땀...물량장 적치 쓰레기 정비 총력

목포시가 내항과 북항 물량장에 조기작업으로 발생된 쓰레기를 정비하며 미향 조성에 나섰다.

모처럼 맑은 가을 풍어로 목포 내항과 북항에서는 지난 9월부터 최근

까지 어민들의 조기 작업이 이어지며 파생된 쓰레기가 물량장 쌓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악취 등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목포시는 목포지방해양수산

청, 목포유자방 협회와 쓰레기 정비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대대적인 정결 활동과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했다.

김정환기자

영암군농촌지도사회 환경정화활동 실시

환경오염원 사전 차단하고 자원재활용 의식 제고

영암군은 농촌지도자영암군연합회(회장 김강식)가 지난 19일 연합회 임원 및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만들기를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고 밝혔다.

농촌환경정화활동은 영암군 각 읍면 농촌지도사회원들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농약병과 폐비닐 등을 수거하여 캐

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코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수거된 농약병과 영농폐비닐 등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처리될 예정으로 농촌환경정화 효과와 더불어 처리된 폐영농자재수익금은 농촌지도사회에서 장학회나 불우 이웃돕기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군, 밀폐공간작업안전교육 실시

하수처리시설 직원 10여명 대상

영광군은 지난 23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직원 10여명을 대상으로 밀폐 공간 작업 시 주의사항 및 요구조자 구조 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하수처리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365일 가동되는 하수처리시설의 특성상 밀폐된 지하시설물에 수시로 출입하는 직원들이 올바른 작업방법을 숙지하여 질식·중독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구 착용후 작업방법과 심폐소생술(CPR) 등 실습 위주로 진행하였다.

영광=서희권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